

같이 보기

: 옥tober페스트 방문기

2022 허심청브로이 옥tober페스트 방문기

글 박민승 대한산업보건협회 부산경남지역본부 사내기자



현대인들은 저마다 여러 이유로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직장인의 경우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퇴근 후 직장 동료와 시원한 맥주 한 잔 들이켜기 위해 생맥주집을 찾는다. 마침 가을이 저물어 가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 퇴근 후에 맥주 한 잔이 생각나는 계절인 11월이 되었다. 이 계절을 맞이해 지난 10월, 올해로 16회를 맞이하는 2022 허심청브로이 옥tober페스트에 대한산업보건협회 부산경남지역본부 직원들이 다녀왔다. 이 축제는 부산 지역 맥주 축제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2019년이 마지막 개최였는데 금년에 3년 만에 부활하여 맥주 애주가인 직원들의 기대가 컸다. 그래서일까. 직급과 관계없이 축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직원들이

모였는데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그리고 본부장님까지 다양한 인원이 참석하게 되었다.

10월 13일 목요일, 퇴근 시간에 맞춰 지하철을 타고 온천장역에 내려 직원들과 함께 행사장인 호텔농심 야외마당에 도착했다. 입구에서 티켓을 건네고 들어서니 맥주컵을 나눠 주었다. 이 맥주컵은 맥주가 마르지 않는 잔인 축제 전용컵으로 맥주 부스에 빈 잔을 들고 가면 무제한으로 리필해주는 형식이었다. 6시가 조금 지난 시간이었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자리에 앉아 맥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우리 협회 직원들은 행사 무대와 인접한 곳에 자리를 잡을 수 있었고 곧 맥주컵에 맥주를 채우러 부스로





향했다. 맥주 부스에는 4가지 종류의 맥주가 있었는데 정통 독일 맥주인 펄스, 둔켈과 테라, 파울라너를 맛볼 수 있었다. 그 옆 부스에는 옥tober페스트 축제를 위해 호텔 셰프가 조리한 훈제오리와 삼겹살 세트, 치킨, 미니족발 등 푸짐한 안주들이 즐비했다. 행사직원의 설명으로는 해마다 이 축제에서 비워낸 맥주 통은 400통에 달한다고 하며 그 용량이 무려 2만 리터가 넘는 양이라고 한다. 그렇게 맥주컵에 맥주를 채우고 마시고 채우고 마시고를 몇 번 하니 우리 직원들의 텐션이 올라갔고 앞, 뒤, 옆 테이블 또한 마찬가지로 이 축제에 참여한 모두가 즐기고 있었다.

행사 무대에서는 걸그룹 댄스 공연과 저글링 묘기, 노래 경연이 진행되어 분위기를 고조시키던 중이었다. 진행자의 '맥주 빨리 마시기 대회'를 시작한다는 한마디에 사람들의 시선이 진행자에게 집중되었고 남녀 각각 선착순 6명을 뽑아서 대회를 진행하였다. 참가자 12명 중 부산경남지역본부 여직원 2명과 남직원 1명이 참여하였지만 안타깝게도 1등 수상의 영광은 다음으로 미뤄야 했다. 하지만 대회에 앞서 진

행자가 한 명씩 자기소개를 부탁한다는 말에 직원 3명 모두 '대한산업보건협회에 근무하는 000입니다.'라고 소개를 하여 1,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협회에 대한 홍보 아닌 홍보를 하게 되었다. 마지막 행사에서는 클럽 분위기를 만들어 무대 앞으로 사람들이 나와 신나게 몸을 흔들며 스트레스를 푸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그렇게 한참을 신나게 놀다 보니 10시가 될 무렵 축제는 마무리되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는 입장할 때 받은 맥주잔을 가지고 갈 수 있어 기념품을 받은 것 같아 기분이 좋았다. 맥주 축제를 즐기는 연령은 참으로 다양했으며 우리 협회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회사에서도 직장동료들과 함께 축제에 온 듯 보였다. 신기하게도 맥주를 마시는 술자리였지만 누구하나 딱딱한 회사 혹은 일 이야기를 하거나 술을 권유하는 직원은 없었다. 그냥 축제 그 자체를 즐기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오늘과 같은 부드러운 회식문화가 우리나라의 모든 회사에 형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